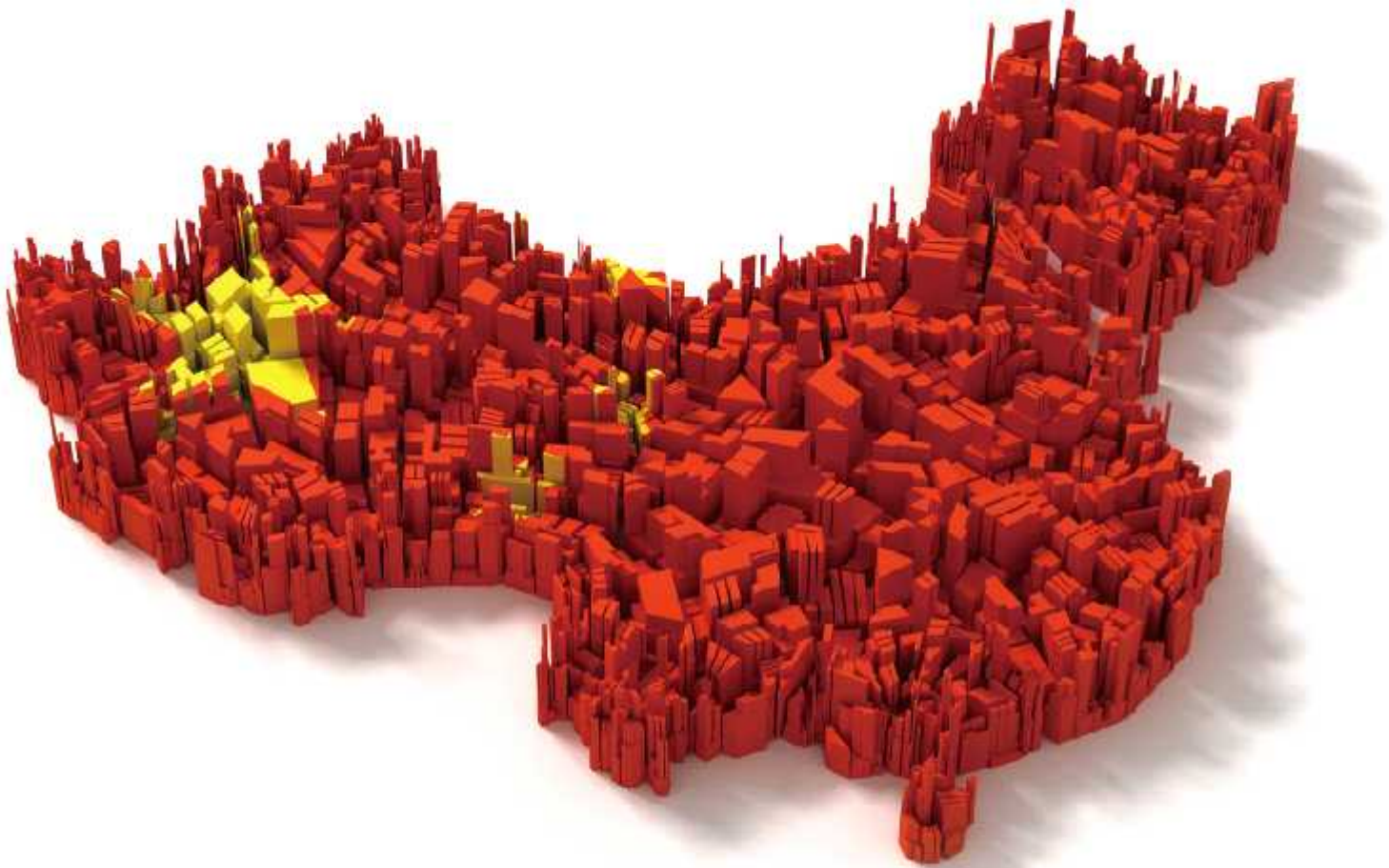


중국 시장 및 한중 교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국 시장 및 한중 교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016. 2.

kotra

순서

[요약]

I. 중국경제 동향	1
1. 거시 경제 동향	
2. 현안 이슈 점검	
II. 중국 진출 여건 변화	8
1. 시장/산업	
1) 구조 변화	
2) 정책 변화	
2. 권역(지역)	
1) 구조 변화	
2) 정책 변화	
III. 한국의 대중 투자 및 무역 동향	17
1. 투자 : 일방향 투자에서 양방향 투자로 전환	
2. 무역 : 수출 감소 속 무역구조 변화 중	
IV. 분야별 대응방안	24
1. 중국의 경기둔화	
2. 위안화 변동	
3. 중국 및 우리의 대중국 수출 둔화	
4.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첨부1] 13차 5개년 계획('16~'20) 주요 내용	28
[첨부2] 중앙경제공작회의('15.12) 주요 결정 내용	29
[첨부3] 2016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전망	30

[요 약]

1. 거시경제 동향

□ (거시경제 동향) '12년 이후 4년째 8% 이하 성장률 보이는 가운데 '15년 6.9%로 하락,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나 경착륙 가능성은 적음

- '15년 1/4분기와 2/4분기 당초 목표인 7.0%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3/4분기 6.9%를 기록한 뒤 4/4분기 6.8%를 기록
- 다만, 둔화폭이 크지 않고 중국 당국 역시 6.9% 성장률은 당초 목표 범위 내에 있는 성과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
 - * “올해의 GDP 증가 목표는 7.0% 좌우”(리커창 총리 3월 초 전인대 보고 중)
- 고성장에 이은 성장 둔화(‘중진국 함정’) 현상이 중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아직까지는 둔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

2. 중국 진출 여건 변화

□ (시장/산업) 서비스, 내수, 정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

- 서비스업 비중이 급증하고 제조업 비중 감소
- 제조업 내에서는 내수용 제품 및 소비재 비중 증가
- 유통에서 온라인 상거래 급증
- 정부 정책도 신창타이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내수 및 고용 창출에 초점
 - 혁신 창업, 대중 창업(만인창업)을 통한 신수요 및 신공급원 창출
 - 스마트·그린·건강·안전 소비 촉진 및 서비스 소비 확대
 - 전자상거래 육성(“인터넷+”)을 통한 신수요 발굴
 - 사회복지 확대 및 소득불균형 완화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
 - ‘중국제조 2025’통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및 중점 실험실 및 10대 신흥 산업 육성
 - 고속·모바일·안전·광범위한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 등

□ (권역/지역) 권역별 특화 발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정책도 특화 발전과 도시화 동시 추진으로 선회

- 권역별 격차 감소보다는 특화 발전 두드러짐
- 서부지역 개발 강조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화 발전 추진
 - * 서부지역 인프라 개선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동북지역 진흥, 수도권지역 협동발전 및 장강경제벨트 추진 등
- 이와 동시에 신흥도시화를 통한 도농 일체형·상호촉진 및 협조 추진
 - *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신농촌건설’ 정책을 ‘신흥도시화’ 정책으로 대체

3. 한국의 대중국 투자 및 무역 동향

□ (투자) 일방향(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양방향 투자로 전환

- (한국의 대중국 투자) 중국은 한국의 2위 투자 상대국, 실제로는 1위(미국)와 비슷한 수준
 - '15년 1~9월 현재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은 14.9%로 2위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 홍콩 및 싱가포르 투자가 사실상 대중국 투자임을 감안 시 더욱 큰 비중을 차지
- (중국의 대한국 투자) 중국은 사실상 1위의 대한국 투자 상대국
 - 한국의 FDI 도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9.5%로 3위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을 통한 우회투자가 많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판단
 - * 실제로 '14년 중국 상무부 발표 대한국 투자신고액은 5.4억 달러인 반면 한국(산업부) 통계는 11억 달러로 우회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건수 기준으로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중국 비중은 25.4%로 1위 차지

□ (수출입) 대중국 수출 감소 속 무역구조 변화 진행 중

- 대중수출은 '15년 5.4% 감소했으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0.8%로 전년 대비 1.1%p 확대
- 가공단계별로는 최종재 가운데 소비재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 중간재 내에서 반제품의 비중은 급감하고 부품·부분품의 비중은 급증
-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기계류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급감

4. 대응방안

-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최대의 성장 시장임을 감안하여 내수 개척 및 신규시장 수요를 겨냥한 진출 방안 마련
- 위안화 변동과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환율 유지, 환 변동 보험 확대 등 환율 불안정성에 대비
- 중국의 수출입 및 우리의 대중국 수출입 둔화에 대응하여 투 트랙 전략 모색 및 신규(정책) 수요 맞춤형 전략 강구
 - 가공무역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및 밸류체인(공급망) 조정
 -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제고를 위한 한중 FTA 활용 강화와 전자상거래 활용 확대에 노력
 - 중국의 신 시장 및 정책수요 시장* 수출 확대
 - *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관련 시장 등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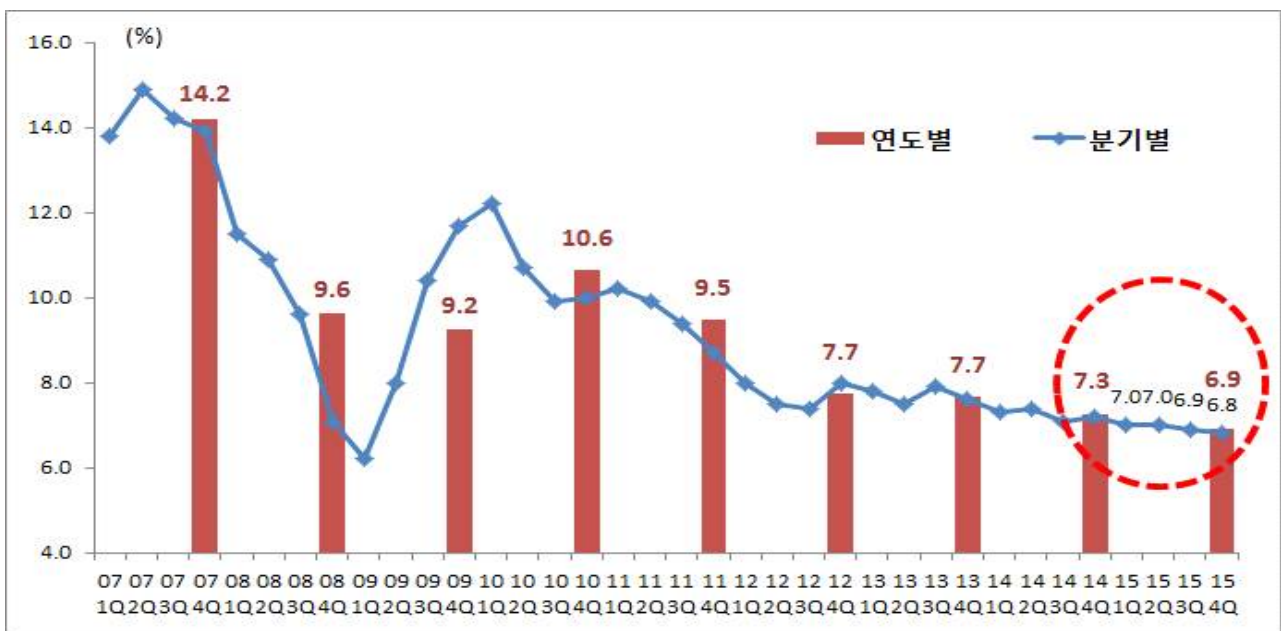
중국 경제 동향

1

거시경제 동향

- (거시경제 동향) '12년 8% 이하 성장률로 떨어진 뒤 4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15년 6.9% 기록, 경착륙 수준은 아니나 중국발 경기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 '15년 1/4분기와 2/4분기 당초 목표인 7.0%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3분기 6.9%를 기록한 뒤 4/4분기 6.8% 기록
- 다만, 둔화폭이 크지 않고 중국 당국 역시 6.9%는 당초의 성장목표 범위 내에 있는 성과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
- * “올해의 GDP 증가율 목표는 7.0% 안팎”(리커창 총리 전인대 보고(3월) 중)
- 고성장에 이은 성장 둔화 현상(‘중진국 함정’)이 중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최근 수년간 추세로 보아 과거 일본, 한국 수준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적음

<중국의 GDP 증가율(연도별,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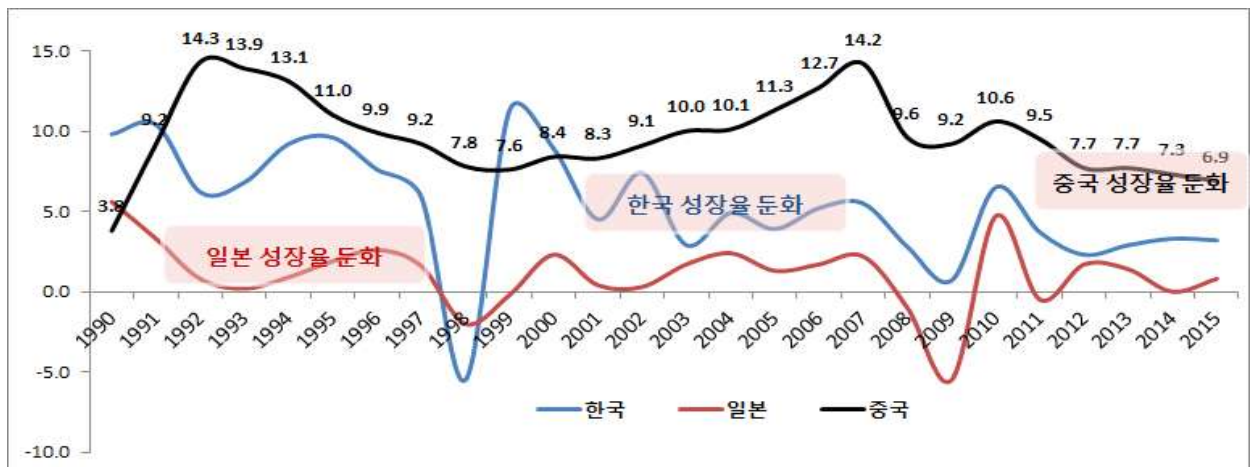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국, CEIC

☞ (쟁점) 중국도 '중진국 함정'에 빠지나?

- 성장률 둔화에 따라 중국도 고성장 이후의 성장률 둔화('중진국 함정'*)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
 - * middle income trap :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서 처음 제기했으며 1인당 GDP 1,000~12,000달러인 중소득 국가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률 둔화로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에 실패하기 쉽다는 뜻. 일본의 경우 선진국이긴 했으나 1990년대 초 이후 장기침체에 빠진 바 있고, 한국도 남미나 필리핀 등 수준은 아니나 1990년대 말 이후 성장률 둔화를 경험
- 그러나 중국은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일본, 한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성장률 둔화가 중국정부의 능동적 정책 선택인 측면*이 있고, 성장률 둔화세도 일본과 한국에 비해 완만하게 전개
 - *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이 끝난 '12년부터 긴축기조(신중한 경기부양)와 구조개혁에 노력(이른바 '리코노믹스')
- 따라서 중국의 성장 둔화세는 불가피하겠지만 일본, 한국 등에서 보였던 '중진국 함정'과 정도와 기간 면에서 다를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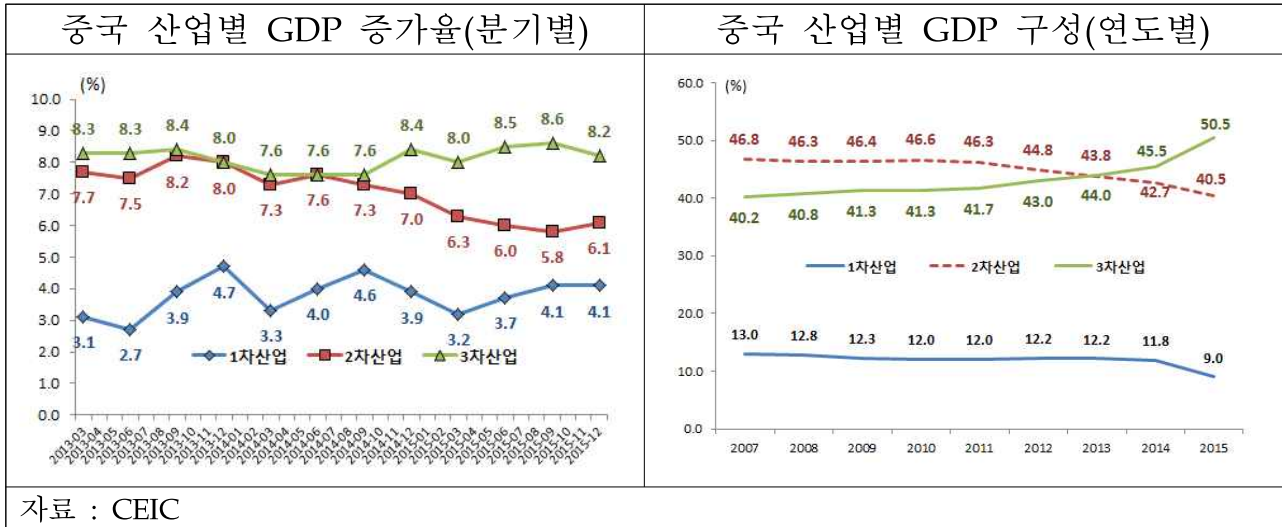
<한중일 3국의 GDP 성장률 추이>



설명 : 중국과 일본 '15년은 KIEP '15년 7월 전망치, 한국 '15년은 한국은행 '15년 10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 (산업별 증가율) 투자와 수출 증가율 둔화로 제조업이 부진한 반면 소비 및 3차 산업은 호조를 보여 성장률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음
 - 2차 산업의 증가율이 1Q 6.3% → 4Q 6.1%로 계속 둔화되는 반면, 3차 산업이 GDP 증가율을 이끌고 있음
 - * 3차 산업 증가율(%) : ('15년 1Q) 8.0 → (2Q) 8.5 → (3Q) 8.6 → (4Q) 8.2
 - * 1차 산업 증가율(%) : ('15년 1Q) 3.2 → (2Q) 3.7 → (3Q) 4.1 → (4Q) 4.1
 - 이에 따라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 * GDP에서 3차 산업의 비중(%) : ('13년) 44.0 → ('14년) 45.5 → ('15년) 50.5

<중국의 산업별 GDP 증가 추이>



○ (투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둔화가 GDP 증가율을 끌어내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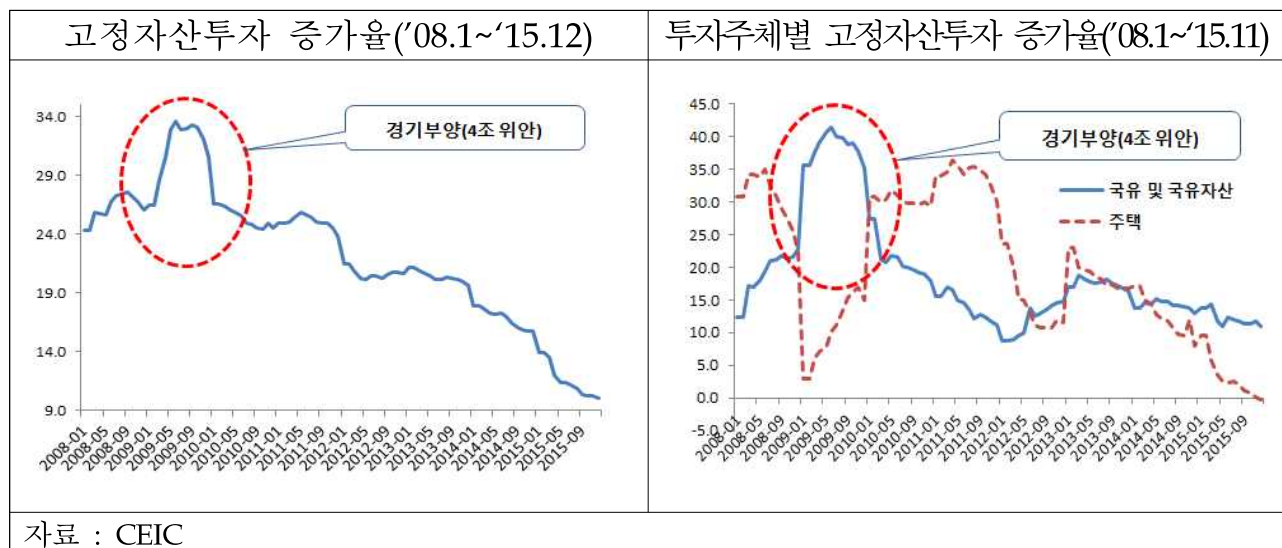
* 고정자산투자증가율(%) : ('08.8월) 27.6 → ('13.12월) 19.6 → ('14.12월) 15.7 → ('15.11월) 10.2

- 분야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 조치의 주된 수단 이었던 국유 및 국유 통제하의 투자가 2010년 이후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정부의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시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부동산 투자 역시 '13년 이후 둔화세 지속 중

* 국유 및 국유자산 투자증가율(%) : ('08.8월) 19.3 → ('13.12월) 16.7 → ('14.12월) 13.0 → ('15.11월) 11.7

* 주거용 건물 투자증가율(%) : ('08.8월) 35.1 → ('13.12월) 16.3 → ('14.12월) 7.9 → ('15.11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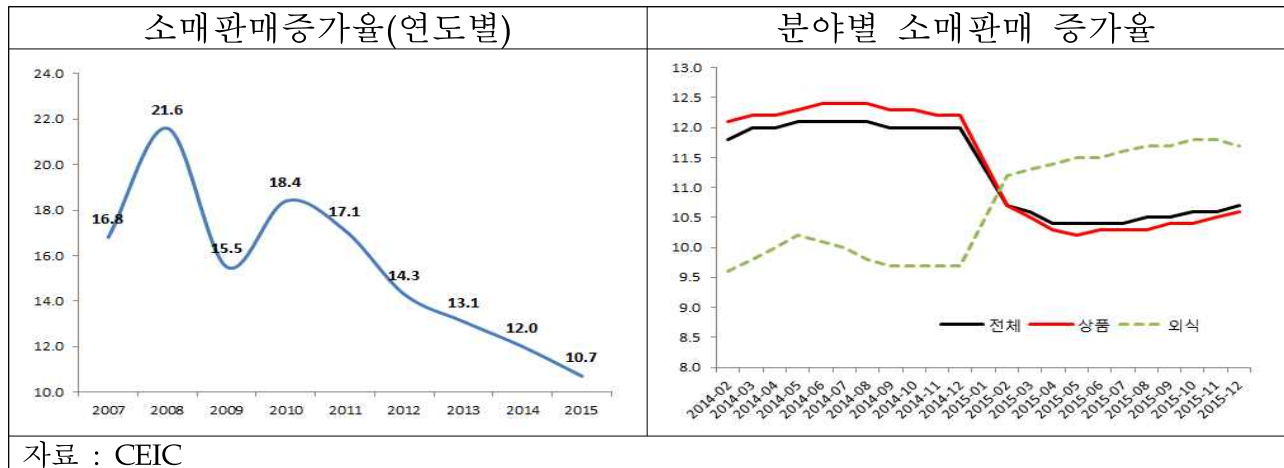
○ (소비) '13년 하반기 이후의 소비둔화세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된 뒤 하반기 들어 회복세 시현

* 소매 판매증가율(연도별, %) : ('10년) 18.4 → ('13년) 13.1 → ('15년) 10.7

* 소매 판매증가율(월별 누계, %) : ('14.12월) 12.2 → ('15.4월) 10.4 → (11월) 10.6 → (12월) 10.7

- 분야별로는 제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품판매 보다는 요식업이 소비 증가세를 견인

* 분야별 소매 판매 증가율('15년, %) : 상품 10.6, 요식업 11.8



○ (수출) '12년 이후 10% 이내 증가율로 떨어진 뒤 '15년 들어 감소세로 접어드는 등 수출 부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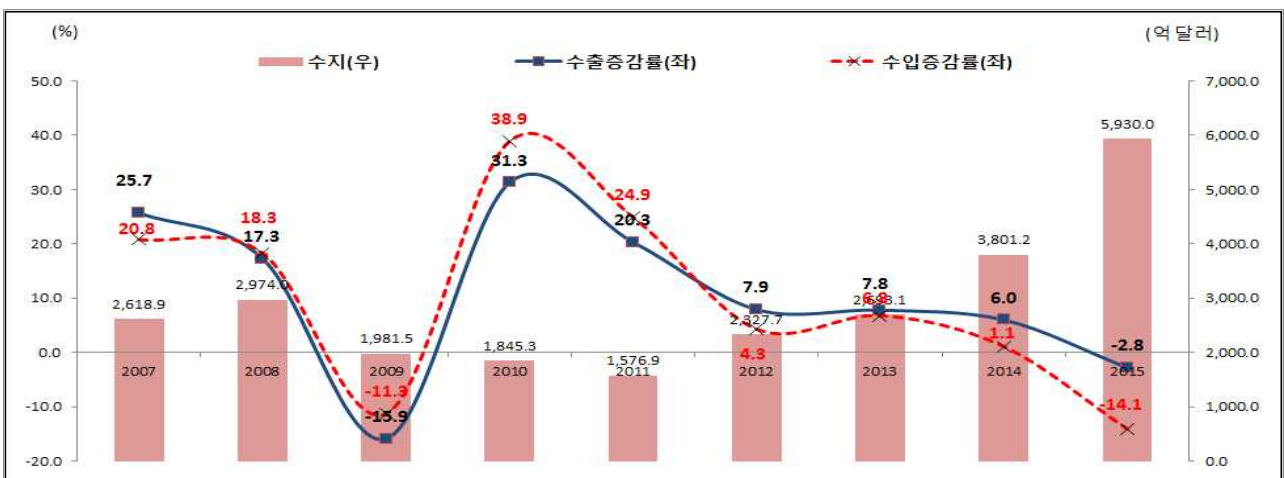
* 수출증가율(%) : ('12년)7.9 → ('13년)7.8 → ('14년)6.0 → ('15년) △2.8

- 국제 원자재가 하락, 외자기업 중국내 생산 둔화 등에 따른 수입 급락으로 불황형 흑자 확대 중

* 수입증가율(%) : ('12년)4.3 → ('13년)6.8 → ('14년)1.1 → ('15년) △14.1

** 무역수지(억 달러) : ('14년) 3,801.2 → ('15년) 5,930.0

<중국의 수출입 추이(연도별)>



자료 : CEIC

□ (경기 전망) 2015년 25년 만에 7% 이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향후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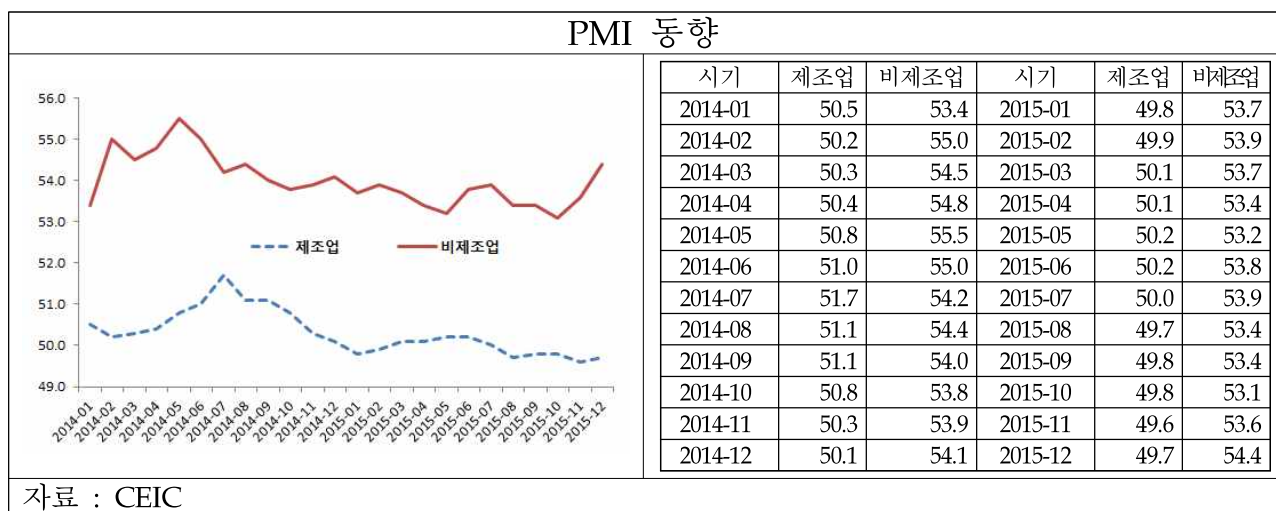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 제조업 분야 구매담당자 지수(PMI)는 '15년 8월 이후 5개월째 50 이하로 경기둔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비제조업 분야는 53 이상의 활황세를 보이다가 2015년 12월에는 54.4 기록

* 제조업 PMI : ('15.8) 49.7 → ('15.10) 49.8 → ('15.12) 49.7

- 비제조업 PMI 지수는 올해 9개월 연속 53대로 안정적 호황세, 12월 54.4로 상승

* 비제조업 PMI : ('15.8) 53.4 → ('15.10) 53.1 → ('15.12) 54.4

* PMI 지수 50.0 이상은 경기확장세, 이하는 감소세를 의미



○ (주요기관 전망) 주요 투자은행(IB), 6.7%~7.1% 수준으로 전망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중국 성장률 전망>

기관/투자은행	전망시기	전망치(%)	기관/투자은행	전망시기	전망치(%)
KIEP	2015.10	6.4	World Bank	2015.10	6.7
IMF	2015.10	6.3	CASS	2016.01	6.7
Global Insight	2015.10	6.7	PBOC	2015.12	6.8
ADB	2015.09	6.7	CTIC	2016.01	6.5

자료 : KIEP 보고서(2016.1)에서 취합한 내용을 인용

○ (장기전망) 2016~20년 6~7%대, 2021~30년 5~6%의 기조적 하락 전망

<주요기관의 중국경제 장기전망>

추정기관	발표 시기	추정기간		
		2016~2020	2021~2030	
			2021~25	2026~30
중국사회과학원	2014.10	5.7~6.6	5.4~6.3	
국무원 DRC	2014.03	7.0	6.2	
중국국가통계국	2012.02	7.0	5.9	5.0
골드만 삭스	2014.12	6.5	-	

자료 : KIEP

◆ 증시

□ (현황) 전반적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6~8월 중 증시 급 변동으로 큰 충격을 준비 있으나 이후 조정세 지속

○ (증시 불안) '15년 6월 5,166.4까지 치솟은 후 7월 8일 3,507.2(-32%)로 급락 후 8월 25일 3,000선 붕괴, 9월 29일 3,031.1 기록하는 등 급등락세 재출현

— 이후 조정장세 보였으나 2016년 1월 초 급락세 보이는 등 간헐적 불안장세 재출현

* 2015년 1월 31일 3,539.3에서 2016년 1월 4일 3,296.3을 기록(6.9% 하락)

○ (전망) 정부의 자금투입 및 관리 강화로 보합세 기록 중이며, 현 추세로 보아 안정세 유지*하겠으나 중국 주식시장 구조**상 돌발적인 급등락 가능성 상존

* '15년 주식 급락 이후 중국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 투입, 대주주 매도 제한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개입을 지속

** 중국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의 비중이 80%를 상회



자료 : CEIC

◆ 위안화 환율 변동

□ (위안화 동향) 지난해 8월 중순 3%의 평가절하 이후 안정적 조정세를 보이던 위안화 환율이 최근 들어 평가절하 폭 확대(다음 그림 참조)

○ '15년 8월 11~14일 4일간 2.93%(시장가) 평가절하*

* 중간가와 시장 환율 편차 기준 평가절하 폭은 4.6%(중국 상무부)

○ '15년 8월 말~11월 초 안정적 조정세를 보인 뒤 12월 말까지 점진적 평가절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초 평가절하 폭 확대

* '15년 12월 4일~12월 18일 1.5% 평가절하, '15년 12월 28일~16년 1월 7일 1.4% 평가절하

□ (원인) 외화 유출 압력, 수출 확대 필요성 등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평가

○ (수출부진 타개) 중국의 수출 부진과 이에 따른 성장률 둔화 타개

* 중국 수출증가율 : ('14년) 6.0% → ('15년 1~10월) △2.3%로 부진 심화

○ (외화유출 압력)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유출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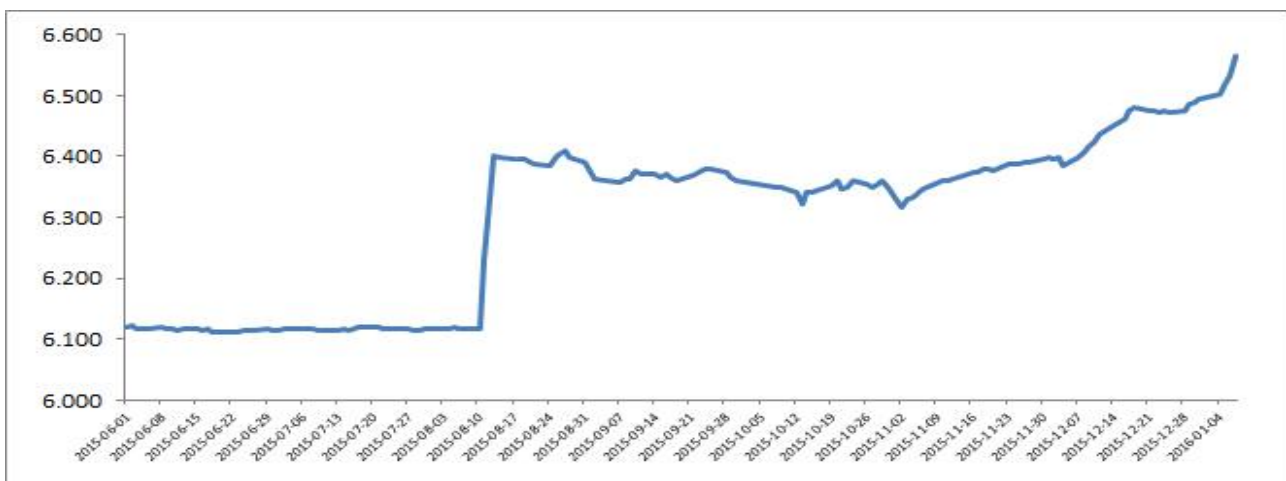
□ (전망) 추가적인 평가절하 가능성 있으나 급등락 가능성은 적음

○ 수출 촉진, 외화유출 억제를 위해 적정 수준의 평가절하 필요성 상존

○ 그러나 지난 수개월간 지속된 수요불일치 완화(시장수요 반영), 과도한 급등락에 따른 불안정 가능성 등은 위안화 환율 변동 억제요인으로 작용

* “위안화 1~2분기 2~3%, 연말 5%의 약세 예상”(귀레이(郭磊) 방정(方正)증권 수석애널리스트)

<위안/달러 동향(2015.6.1.~2016.1.7)>



자료 : CEIC

II

중국 진출 여건 변화

1

시장/산업

1. 구조 변화

□ 서비스산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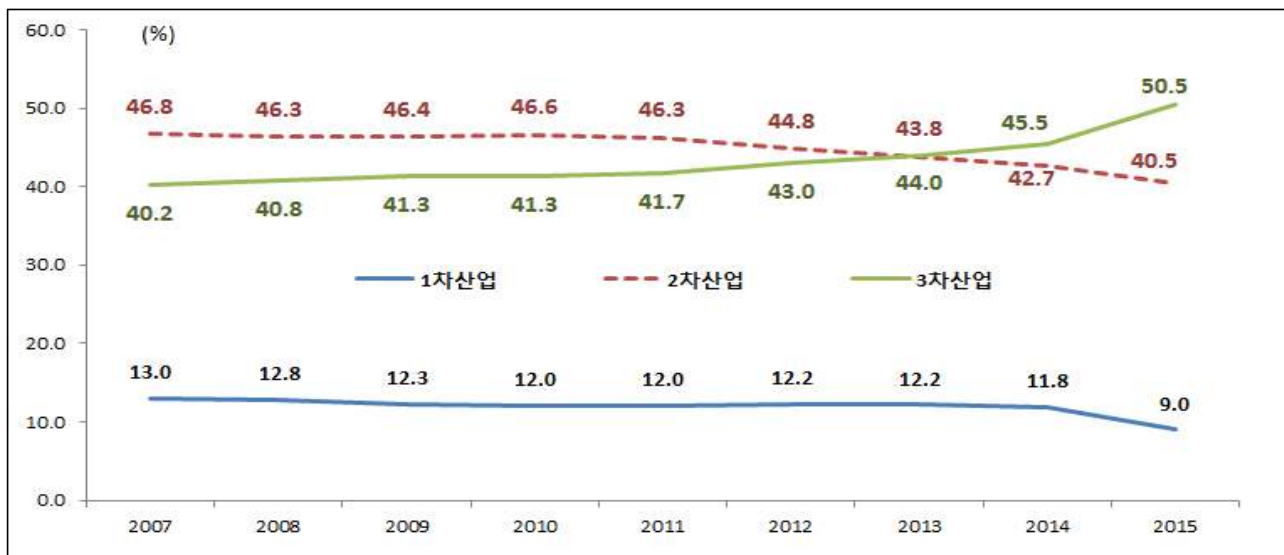
○ 산업구조면에서 3차 산업의 비중 급속 확대

- 2013년 3차 산업과 2차 산업 비중 역전된 뒤 격차 빠른 속도로 확대

*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 : ('13년) 43.8 : 44.0 → ('14년) 42.7 : 45.5
→ ('15년) 40.5 : 50.5

** 같은 기간 1차 산업의 비중은 ('13년) 12.2% → ('15년) 9.0%로 3.2%p 감소

<중국 GDP의 산업별 구성>



자료 : CEIC

○ 2차 산업 내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

* 제조업 비중(%) : ('09년) 38.9 → ('15년 1~9월) 33.2%로 5.7%p 감소

* 건축업 비중(%) : ('09년) 7.6 → ('15년 1~9월) 7.2로 0.4%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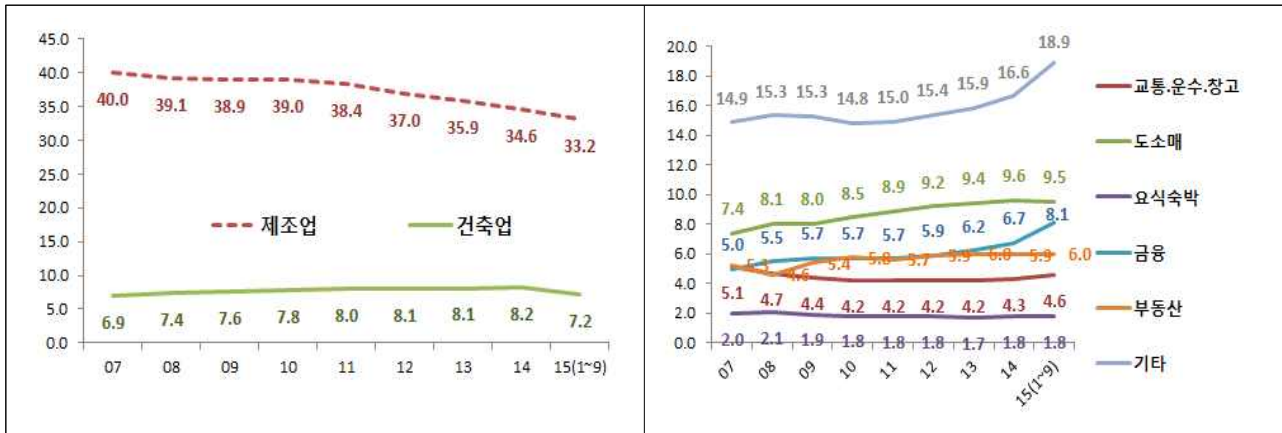
○ 3차 산업 내에서는 금융·기타서비스·도소매 업종의 비중 빠른 속도로 확대

* 금융업 비중(%) : ('09년) 5.7 → ('15년 1~9월) 8.1로 2.4%p 증가

* 도소매업 비중(%) : ('09년) 8.0 → ('15년 1~9월) 9.5로 1.5%p 증가

* 기타서비스업 비중(%) : ('09년) 15.3 → ('15년 1~9월) 18.9로 3.6%p 증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세부 업종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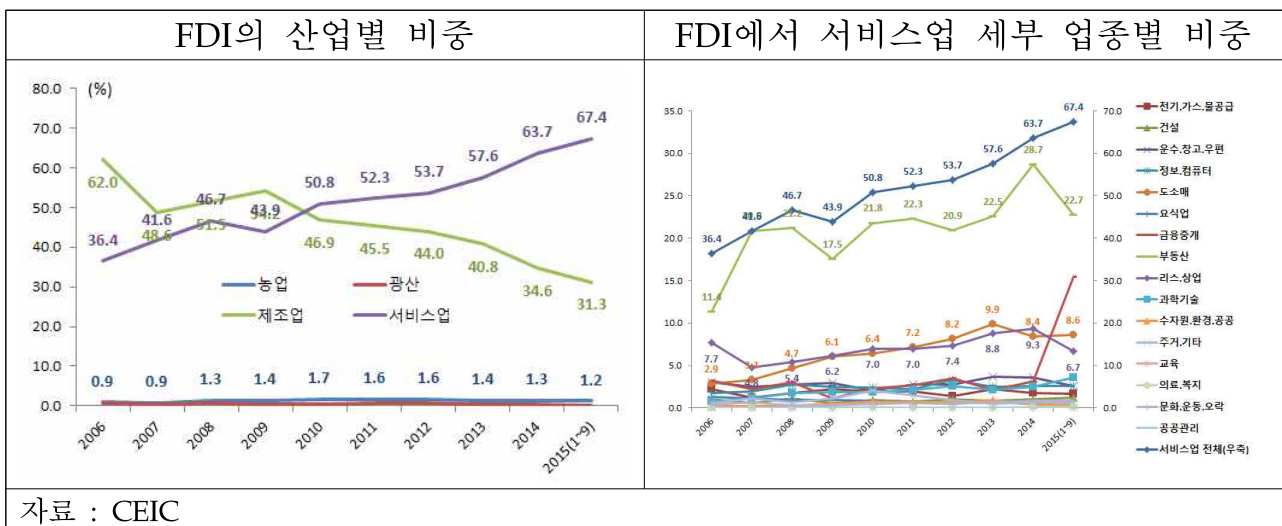
자료 : CEIC

○ 외국인 직접투자에서도 서비스업 비중 더욱 확대

- 2010년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을 넘어선 뒤 격차 급속 확대

*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 : ('10년) 46.9 : 50.8 → ('14년) 34.6 : 63.7
→ ('15년 1~9월) 31.3 : 67.4

- 서비스업 내에서는 부동산, 금융 중개, 도소매, 상업임대업 투자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자료 : CEIC

□ (제조업) 제조업 내에서는 내수 및 소비재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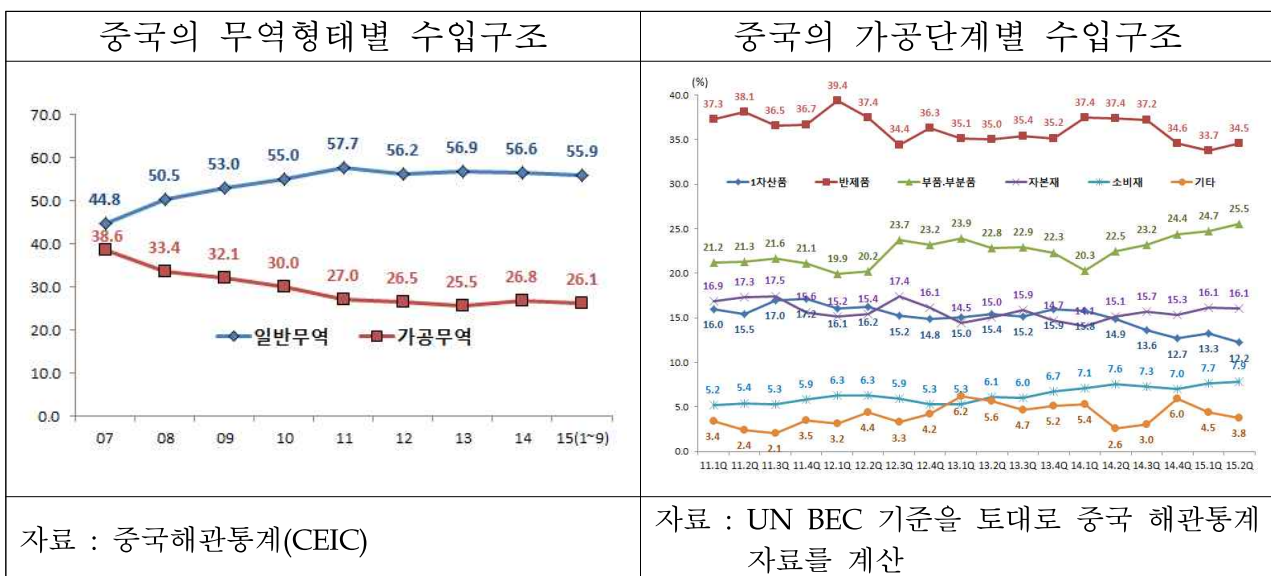
○ (가공무역 감소) 중국 무역제도의 특징인 가공무역*은 이미 중국의 핵심 무역제도가 아님

*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수입해 중국내 가공 후 다시 수출되는 무역방식을 말하며 중국정부는 관세 면제 및 중국내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분에 대해 증치세 환급 혜택을 제공

- 중국의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11년 이후 4년째 20%대를 유지중이며 반대로 일반무역은 50% 대 후반을 유지 중
- 이점에서 중국은 과거와 같은 가공무역(가공생산) 국가가 아님

○ (소비재 수입 확대) 가공단계별로는 소비재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

* 중국의 소비재 수입비중(%) : ('11년 1Q) 5.2 → ('15년 2Q) 7.9



○ 세계 소비재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

- 세계 소비재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08년의 1.8%에서 '14년 4.2%로 2.4%p 증가
- 같은 기간 세부 소비재별 중국의 수입비중 증가폭은 식음료제품 4.3%p, 승용차 7.2%p, 내구소비재 1.1%p, 반내구소비재 1.0%p, 비내구소비재 1.6%p 등임

<세계 소비재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 변화>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중변화 (‘08~‘14)
소비재	1.8	2.1	2.7	3.2	3.5	3.7	4.2	2.4
그 중 식음료제품	1.6	2.5	3.2	3.5	4.7	5.5	5.8	4.3
식음료반제품	1.6	1.7	2.0	2.2	2.3	2.4	2.5	0.9
승용차	2.6	3.9	6.0	7.3	7.9	8.0	9.7	7.2
비산업용 운송장비	0.2	0.9	0.5	0.8	1.2	1.3	1.1	0.9
내구소비재	1.5	1.7	2.1	2.3	2.3	2.4	2.6	1.1
반내구소비재	1.4	1.5	1.8	2.0	2.2	2.3	2.4	1.0
비내구소비재	1.8	2.0	2.2	2.4	2.9	3.0	3.4	1.6

자료 : UN BEC 분류를 기준으로 Trade map의 세계 및 중국무역 통계 자료를 계산하여 작성

□ (유통) 온라인 유통 확대

○ 중국의 온라인 유통 폭발적 성장세 기록 중

- '15년 1~9월 현재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 규모는 10조 위안으로 이는 중국의 전체 소비재 판매 규모의 59.6%에 해당하며 '14년에 비해 비중이 2배 가까이 커진 수준
- 판매형태별 증가율 역시 소매판매에 비해 온라인 소매가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기록
- * '15년 1~9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5%인 반면 온라인 소매는 36.2%에 이릅니다

<중국의 소매 및 온라인 소매 판매액 및 비중>

	소비재 소매판매액 (10억 위안)	온라인 소매판매 (10억 위안)	소비재 판매 비중 (온라인/일반소매)
2014	22,011.3	5,751.1	26.1
2015(1~9)	16,808.7	10,020.2	59.6

자료 : CEIC

<중국의 판매형태별 소매 판매 증가율('15.1~9월)>

소매 판매	온라인 소매 (상품+서비스)	온라인 상품 소매	온라인 서비스 소매
10.5	36.2	34.7	43.6

자료 : CEIC

2. 정책 변화

- (기본방향) '16년 및 향후 5년간(13.5규획) 시장 및 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신창타이 시대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혁신과 내수 및 고용 창출(<첨부1>, <첨부2> 참조)

□ 내수 확대 및 고용 창출 확대

- 혁신 창업, 대중의 창업(만인창업), 대중의 혁신을 통한 신수요 및 신공급원 창출 추진
- 소비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위한 스마트·그린·건강·안전 소비를 촉진하고 서비스 소비 확대를 통한 소비구조 제고
- 전자상거래 육성(인터넷+(互聯網+))을 통한 신수요 발굴
- 권역별 중심지 육성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 사회복지 확대 및 소득불균형 완화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

□ 기술혁신과 신 성장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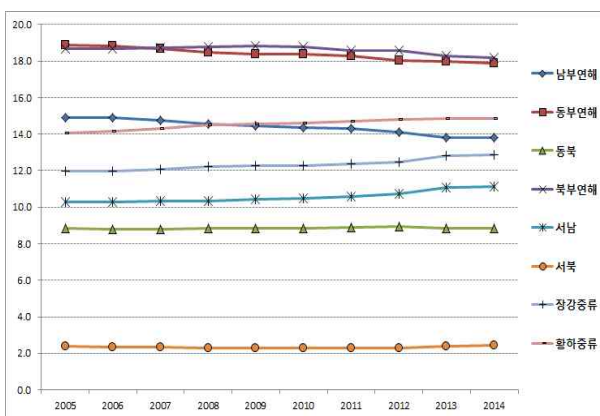
- (신 성장 동력 육성) '중국제조 2025'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 프로젝트 및 국가중점 실험실* 추진하는 동시에 10대 신흥 산업** 육성 추진
 - * (5대 프로젝트)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스마트 제조공정, 공업기반 강화 공정, 녹색제조 공정, 고급장비 혁신공정
 - ** (10대 신 성장 산업)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고급 디지털선반 및 로봇, 항공 우주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고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 장비,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다종차, 전력장비, 농기계장비, 신소재, 생명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 육성
- (정보화 추진) 고속·이동 가능·안전·광범위한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
 - 인터넷 보급 확대를 통해 비용 절감, 차세대 인터넷 선도적 구축을 통해 산업조직·비즈니스 모델·서플라이 체인·물류체인 분야 혁신을 촉진

1. 구조 변화

□ 중서부 권역의 소비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속도는 완만

- 최근 8년간('06~'14년) 소비재 소매판매의 권역별 비중을 비교한 결과 동부 선진 연해지역과 중서부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긴 하나 격차 축소 속도는 완만
- 8년간 소매판매 비중이 줄어든 권역은 남부연해지역(-1.09%), 동부연해지역(-0.92%), 북부연해지역(-0.54%)이나 감소폭은 모두 미미
- 비중이 많이 늘어난 곳은 서남지역(0.84%)과 장강중류지역(0.90%), 황하중류지역(0.71%)으로 중국정부의 노력이 집중된 서부지역 및 동북지역이 아니라 중부 내륙지역임
-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동북지역과 서남지역, 서북지역은 각각 0.05%와 0.84%, 그리고 0.05%의 미미한 증가율 기록

소비재 소매판매에서 8대 권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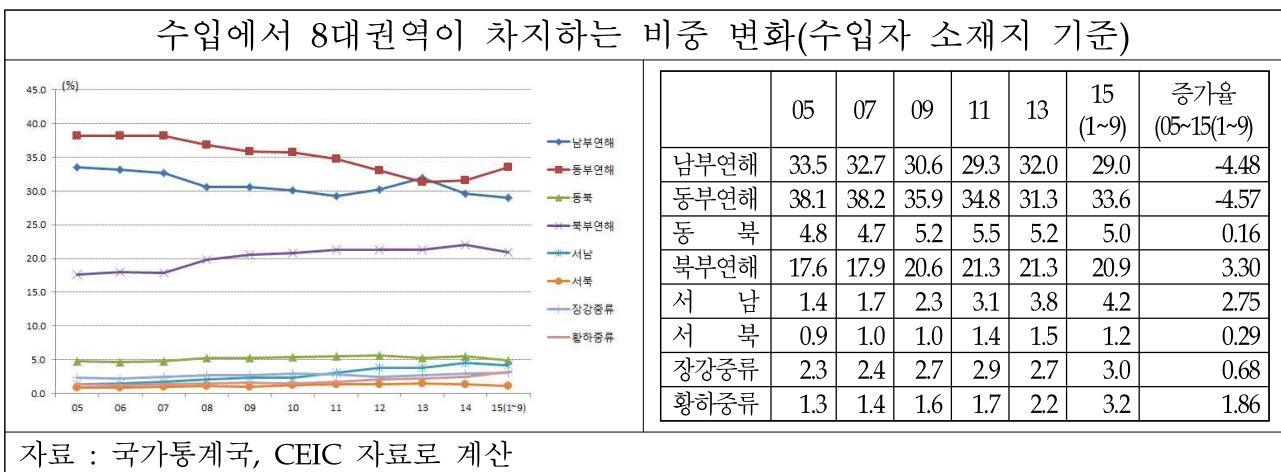


8대권역	2006	2008	2010	2012	2014	증가율 (06~14)
남부연해	14.9	14.5	14.4	14.1	13.8	-1.09
동부연해	18.8	18.5	18.4	18.0	17.9	-0.92
동 북	8.8	8.8	8.9	9.0	8.8	0.05
북부연해	18.7	18.8	18.7	18.6	18.2	-0.54
서 남	10.3	10.4	10.5	10.7	11.1	0.84
서 북	2.4	2.3	2.3	2.3	2.4	0.05
장강중류	12.0	12.2	12.3	12.5	12.9	0.90
황하중류	14.2	14.5	14.6	14.8	14.9	0.71

자료 : 국가통계국, CEIC 자료로 계산

○ 한편 중국 전체 수입에서 각 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 감소폭은 미미하며 동부 연해지역 내 권역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 남부연해지역과 동부연해지역의 수입 비중은 각각 -4.48%, -4.57%의 비중 감소율을 기록
-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같은 연해지역인 북부연해지역이며 (3.30% 증가), 중국정부의 노력이 집중된 동북지역은 0.16%의 미미한 증가폭을 기록



<참고> 중국의 유망 소비 거점도시, 화동지역과 산둥성에 몰려

- 중국의 유망 소비 거점도시 30개 도시 분석* 결과 화동지역(장쑤성, 저장성지역)과 산둥성에 많이 분포하고, 동북 및 서부지역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중국내 도시별 소비품판매액 1인당 소매판매액, 1인당 GDP, 1인당 저축액을 종합해 30개 소비 유망도시 선정
- (지역 분포) 3대 특대도시, 주강삼각주 5개 도시, 장쑤저장성 10개 도시, 산둥성 5개 도시, 동북3성 2개 도시, 중부지역 3개 도시, 서부지역 1개 도시
 - 3대 특대도시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 주강삼각주 5개 도시 : 선전, 포산, 중산, 주하이, (광저우)
 - 장쑤 및 저장성 10개 도시 : 쑤저우, 난징, 항저우, 우시, 닝보 등
 - 산둥성 5개 도시 : 칭다오, 지난, 옌타이, 쑤보, 웨이하이
 - 중부지역 3개 도시 : 정저우, 우한, 창사
 - 동북지역 2개 도시 : 다롄, 선양
 - 서부지역 1개 도시 : 청두, 충칭
- (시사점) 중국 내 진출지역 선정 시 동부-중부-서부 등 대(大)권역 보다는 권역 내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
 - 예를 들어 연해지역 2선 도시, 산둥성의 재평가(내수 유망도시 5개 포함) 등

자료 : "Breaking into the Mainland Consumer Market : HKTDC's Top 30 Cities(2015)", 2015. 6. 25

2. 정책 변화 : 지역별 특화 발전과 도시화의 병행 추진

□ (기본방향) 서부지역 등 특정지역을 우선 지원하기 보다는 각 권역의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 추진을 공포(13.5 기획)
(<첨부1> 참조)

○ (지역발전) 과거와 달리 서부대개발을 강조*하기 보다는 서부지역에 적절한 발전방식 제시 등 지역특화형 발전전략으로 변화

* 12.5 기획에서는 서부대개발과 동북진흥, 중부굴기 정책을 동시 추진

- 서부지역 인프라 개선 및 지역특화형 우위산업 육성 및 생태환경 보호, 동북지역 등 노(老)공업지역 진흥, 중부지역 굴기 촉진 지원 강화, 동부연해지역 우선적 발전 및 타 지역 복사 지원 동시 추진
- 지역발전 성장축 육성을 위해 수도권 지역(京津冀)의 협동발전*과 장강경제벨트** 추진

* 도시 공간배치와 산업구조 최적화, 베이징의 非수도기능 주변 이전, 교통 일체화, 환경 및 생태 부담능력 확대, 인구 및 경제 집중지역의 특화개발 모델 강구 등

** 장강유역 생태환경 개선, 종합적·입체적 교통회랑 구축, 산업 최적화 배치 및 분업 협력 유도 등

○ (도시화 병행 추진) 도농 일체형·상호촉진 발전 및 협조 강화, 요소의 평등한 교환·합리적 배치·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 추진

- 특성을 지닌 농업지역 경제(현역(縣域)경제) 발전*

* 중소도시 및 특성을 지닌 소도시(小城鎮) 육성, 농산품가공 및 농촌서비스 발전, 농민 소득원 확대 등을 통한 농촌 자체의 발전 동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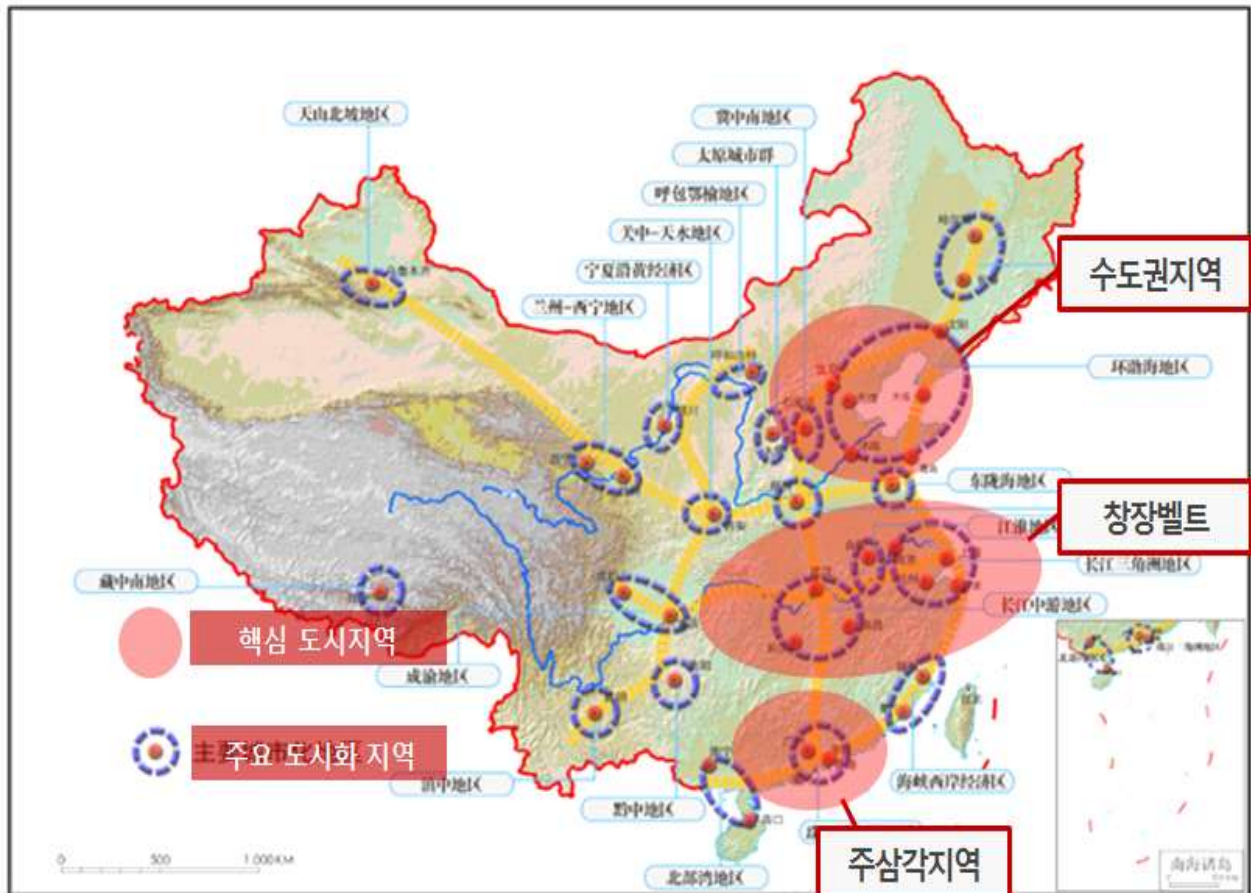
- 인간 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 '14년 공식 발표 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건설·관리 수준 제고, 호적제도 개혁 및 비농업 인구의 점진적 도시민화, 농민공의 농촌 토지 경영권 유지, 주택제도 개혁, 도시 재개발 지원 등

- 특히 '15년 12월 20~21일 37년 만에 중앙도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호적제도 개혁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회복(부동산 재고 처리),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저(低)영향 개발) 방침을 강조

※ 이점에서 중국정부는 농촌 및 농업 지원정책을 도시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도시화 정책을 권역별 발전전략과 통합하여 통합적·입체적 권역 및 도시화 정책을 추진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음

<신형도시화와 13.5규획에 나타난 권역 및 도시군 육성 전략>



자료 : 중국 신형도시화 계획, 13.5규획 건의문을 반영해 작성

Ⅲ

한국의 대중 투자 및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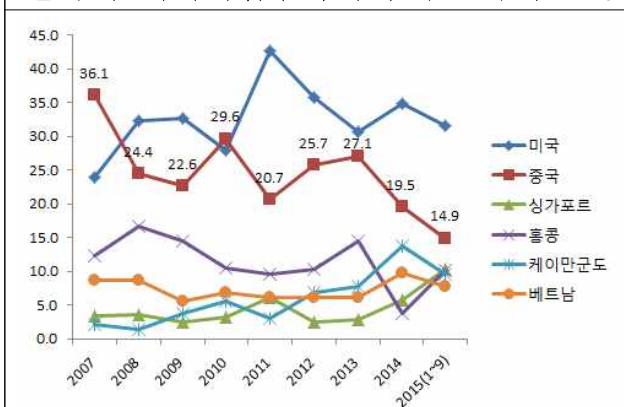
1

투자 : 일방향 대중투자에서 양방향 투자로 전환

□ 중국은 한국의 2위 투자 상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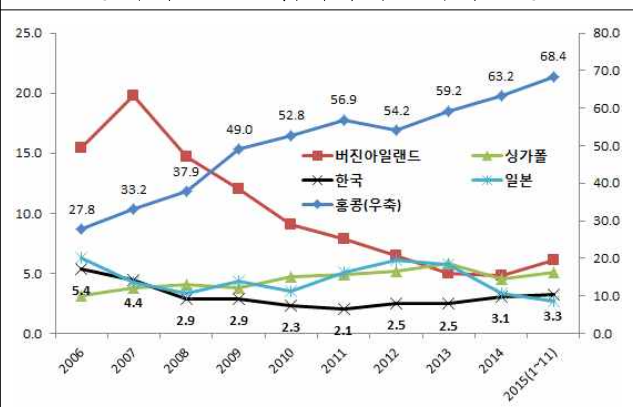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15년 1~9월)
 - 그러나 對 홍콩 및 싱가포르 투자가 사실상 중국으로 향하는 투자임을 고려하면 대중국 투자 규모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 한국의 비중은 3.3%로 4위를 차지('15년 1~11월)
 - 그러나 중국의 투자 유치에서 홍콩이 68.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홍콩이 대중국 우회투자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실제 대중국 투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
 - * 중-홍콩 간 CEPA 발효(2005년) 및 후속 서비스투자 자유화 조치를 통해 중국과 홍콩 간에는 서비스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2015년)이며, 이에 따라 홍콩은 중국의 최대 투자지역(우회 투자지역)으로 부상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주요국의 비중



자료 :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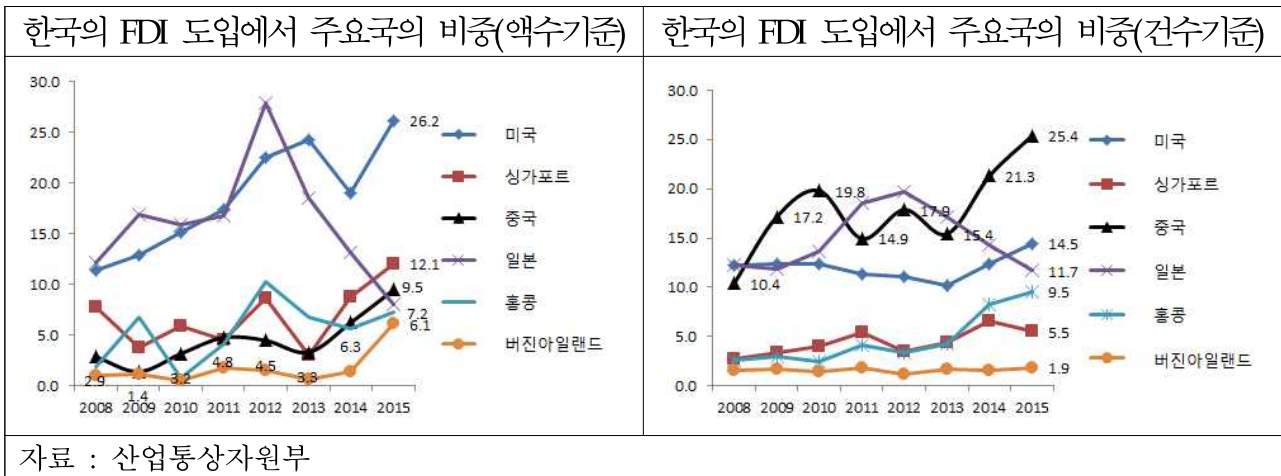
중국의 FDI 도입에서 주요국의 비중



자료 : 상무부(CEIC)

□ 중국은 사실상 최대의 대한국 투자국 중 하나

-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2013년 이후 소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금액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에서 12.1%(2위)를 차지하고 있음(액수기준, 2015년)
 - 그러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대한국 투자가 중국의 우회투자 임을 감안하면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건수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의 25.4%로 1위를 차지(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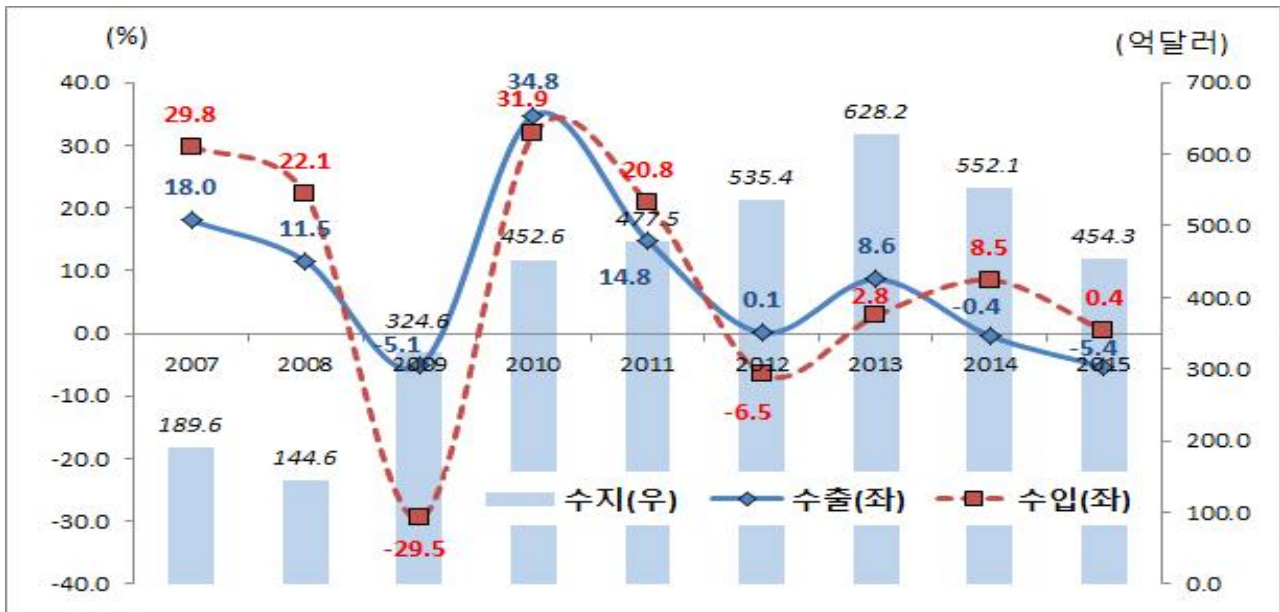


2

무역 : 수출 감소 속 무역구조 변화 중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5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연도별)>



자료 : 관세청(kita.net)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

- 3년째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14년의 9.7%에서 '15년 1~10월 10.8%로 1.1%p 상승

<주요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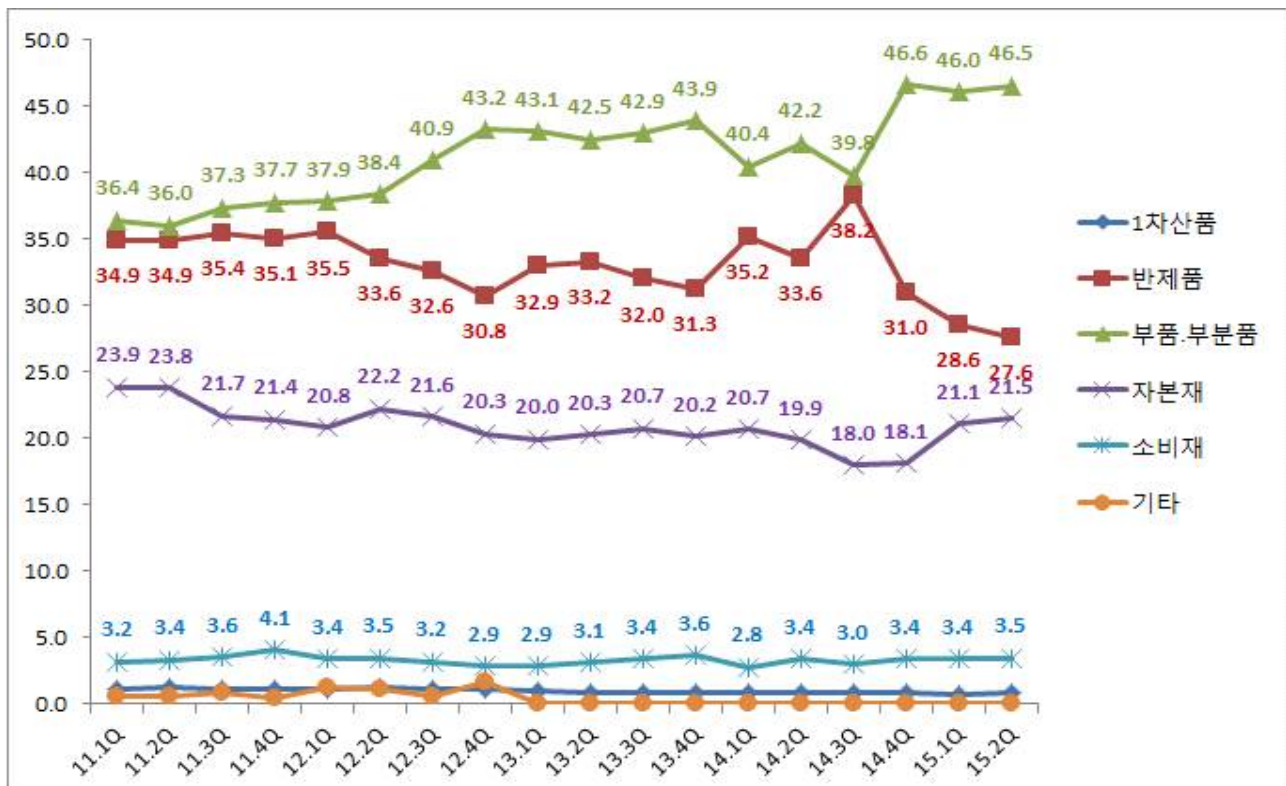


자료 : 중국해관통계(CEIC)로 계산

□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 수출에서 반제품 및 부품·부분품 등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간재 내에서 반제품이 급감하고 여타 가공단계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국제유가 하락 및 중국 내 공급 확대로 인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이 포함된 반제품의 비중이 2014년 3Q 38.2%에서 2015년 2Q 27.6%로 급락
 - 반도체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간재 내에서 부품·부분품의 비중이 같은 기간 39.8%에서 46.5%로 급증
 -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출 비중 확대로 최종재*의 비중도 다소 확대**
- * 최종재=자본재+소비재
- ** 최종재의 수출비중 : ('13.4Q)24.8%(소비재 3.4%, 자본재 20.2%) → ('15.2Q) 25.1%(소비재 3.5%, 자본재 21.5%)

<한국의 대중국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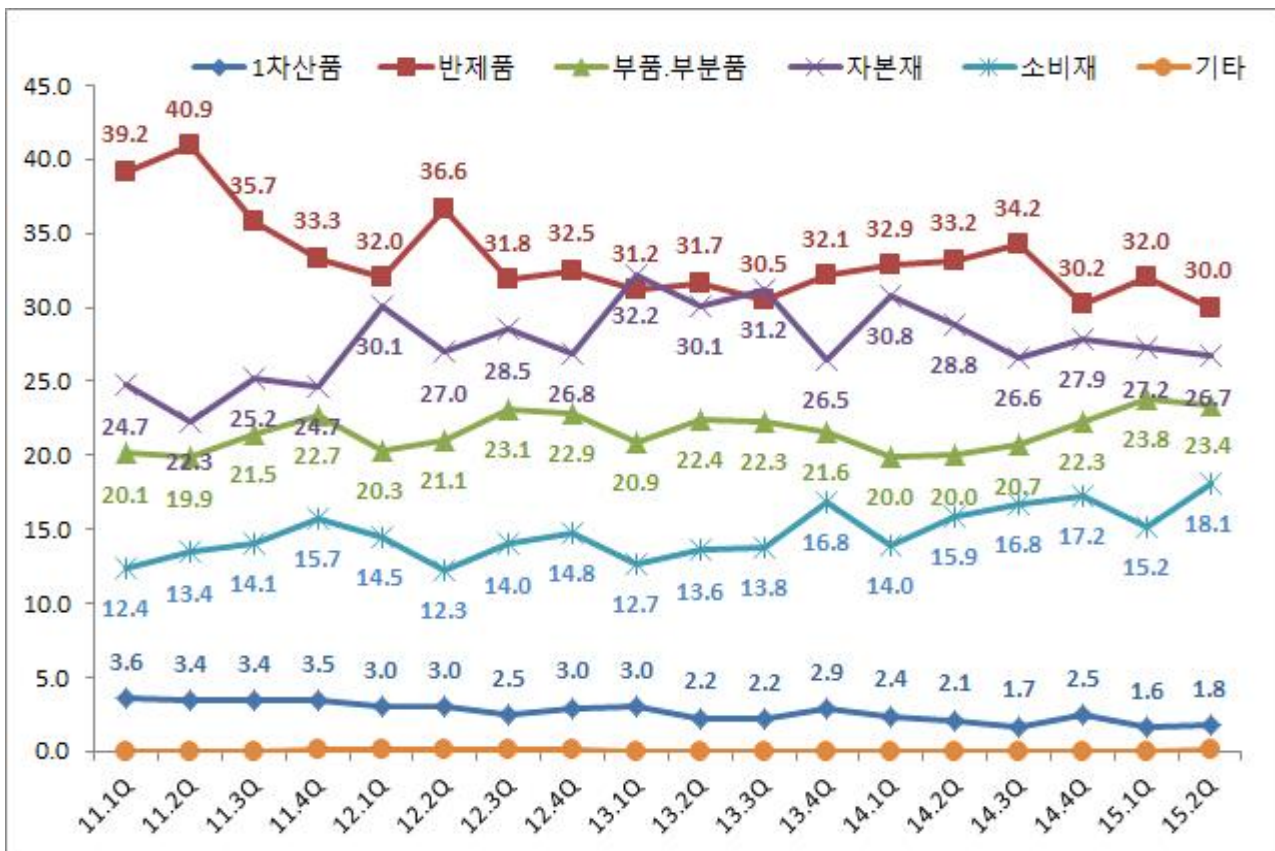


자료 : 중국해관통계 자료를 UN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입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구조와 한국의 대중국 수입구조 간에 전체적인 동조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나 세부구조에서는 변화가 발생 중
- 일단 중간재와 최종재간 비중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 중간재 내에서는 반제품이 줄어드는 반면 부품·부분품은 증가
 - * 반제품 비중 변화 : ('11.2Q) 40.9% → ('15.2Q) 30.0%
 - ** 부품·부분품 비중 변화 : ('11.2Q) 19.9% → ('15.2Q) 23.4%
 - － 최종재 내에서는 소비재가 늘어나는 반면 자본재의 비중 감소
 - * 자본재 비중 변화 : ('13.1Q) 32.2% → ('15.2Q) 26.7%
 - ** 소비재 비중 변화 : ('13.1Q) 12.7% → ('15.2Q) 18.1%

<한국의 대중국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분기별)>



자료 : 중국해관통계 자료를 UN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 한국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 전기전자, 기계류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급감

* 수출 증가 품목 : 전기전자(5.6%) 기계류(2.8%), 동 및 그 제품(2.3%), 무기화학(18.0%)

** 수출 급감 품목 : 유기화학(-25.5%), 플라스틱 및 그 제품(-12.2%), 광물연료(-37.0%), 철강(-22.2%)

<한국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입(한국기준)>

(단위 : %, 억 달러)

순번	품목명	2014년					2015년 (1~11월)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수입 금액	수입 증감률	수지	수출 금액	수출 비중	수출 증감률	수입 금액	수입 비중	수입 증감률	수지
	총계	1,452.9	-0.4	900.8	8.5	552.1	1,261.6	100.0	-4.5	829.9	100.0	1.9	431.6
1	전기전자	511.8	6.4	284.4	8.2	227.4	488.6	38.7	5.6	292.1	35.2	15.7	196.5
2	광학.사진.영화. 정밀기기	203.5	-6.5	40.9	14.9	162.6	177.8	14.1	-4.4	40.2	4.8	7.2	137.6
3	기계류	147.6	3.4	104.6	10.3	43.0	136.8	10.8	2.8	93.3	11.2	-0.7	43.5
4	유기화학	135.2	-9.9	26.5	3.0	108.7	92.9	7.4	-25.5	22.4	2.7	-7.4	70.4
5	플라스틱및그제품	103.8	-3.6	20.7	12.5	83.1	83.7	6.6	-12.2	20.3	2.4	8.4	63.4
6	수송기기	74.4	7.2	14.5	-7.0	59.9	57.8	4.6	-14.9	13.6	1.6	2.0	44.3
7	광물연료	78.0	-12.5	9.1	-32.6	68.9	45.6	3.6	-37.0	4.7	0.6	-45.7	40.9
8	철강	39.1	7.3	89.0	31.9	-50.0	28.0	2.2	-22.2	64.1	7.7	-22.1	-36.1
9	동과 그 제품	16.2	-19.1	5.6	7.2	10.6	14.7	1.2	2.3	4.0	0.5	-21.9	10.7
10	무기화학	11.2	44.0	20.1	15.2	-8.9	11.9	0.9	18.0	18.2	2.2	-0.6	-6.3
11	화장품.정유	6.0	89.3	0.6	8.7	5.4	10.6	0.8	108.7	0.6	0.1	7.5	10.0
12	철강의 제품	10.6	2.7	35.3	-3.0	-24.8	9.7	0.8	2.5	33.1	4.0	3.6	-23.4
13	화학제품	9.8	12.1	11.8	16.9	-1.9	8.1	0.6	-10.1	9.5	1.1	-11.4	-1.5
14	염료.안료	8.0	-11.4	4.6	9.9	3.4	7.4	0.6	1.0	4.0	0.5	-6.3	3.4
15	고무와 그 제품	8.9	-6.0	3.8	0.3	5.1	7.2	0.6	-11.8	3.5	0.4	0.2	3.7
16	알루미늄과 그 제품	6.1	2.7	7.5	6.0	-1.4	5.3	0.4	-2.3	8.3	1.0	21.8	-2.9
17	선박	4.4	-64.4	4.1	-27.3	0.3	4.5	0.4	48.9	5.3	0.6	43.3	-0.8
18	인조장섬유	5.5	-9.6	6.2	11.4	-0.7	4.3	0.3	-14.0	5.2	0.6	-7.7	-0.9
19	비금속제 제품	4.3	31.0	2.4	3.7	1.9	4.0	0.3	0.3	2.2	0.3	3.2	1.8
20	가구.침구.조명	5.1	-5.2	17.0	21.9	-11.9	4.0	0.3	-14.1	17.0	2.0	10.0	-12.9
	소계 (수출상위20품목)	1,389.4	-	708.6	-	680.8	1,203.0	95.4	-	661.7	79.7	-	541.2

자료 : 관세청(kita.net)

☞ (참고) 중국기준 한국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 : 수출입 집계방식의 차이로 인해 액수상의 차이는 있으나 품목별 순위의 차이는 없음

<중국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입(중국기준)>

(단위 : %, 억 달러, HS2단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10월)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수입 금액	수입 증감률	수지	수출 금액	수출 비중	수출 증감률	수입 금액	수입 비중	수입 증감률	수지
	총계	1,004.0	10.8	1,902.9	6.1	-898.8	831.4	100.0	1.1	1,417.2	100.0	-10.2	-585.7
1	전기전자	370.1	9.7	767.2	3.7	-397.1	313.6	37.7	5.0	646.3	45.6	4.5	-332.7
2	광학사진영화재료	41.2	-0.8	223.2	-4.8	-182.0	35.3	4.2	2.6	176.7	12.5	-5.2	-141.4
3	기계	90.8	2.0	175.2	12.5	-84.3	77.7	9.4	3.8	146.1	10.3	2.1	-68.3
4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7.9	13.0	124.6	0.5	-106.7	17.0	2.0	17.1	92.0	6.5	-11.6	-75.0
5	유기화학	25.1	0.4	141.3	-7.9	-116.2	18.9	2.3	-10.6	89.0	6.3	-24.5	-70.1
6	광물연료 및 가공품	21.2	7.2	95.4	-7.6	-74.2	13.7	1.7	-28.2	55.1	3.9	-30.8	-41.4
7	수송기기	14.3	-4.0	57.1	10.5	-42.8	12.4	1.5	3.7	38.6	2.7	-17.2	-26.2
8	철강	83.4	27.8	43.2	9.1	40.2	54.6	6.6	-22.8	28.8	2.0	-20.8	25.8
9	동 및 그 제품	8.8	61.8	20.6	-14.8	-11.8	4.1	0.5	-44.9	16.6	1.2	-1.6	-12.5
10	화학제품	10.9	22.8	15.8	-2.3	-4.9	8.4	1.0	-7.8	12.8	0.9	-3.8	-4.5
11	무기화학	19.4	18.8	12.4	46.3	7.0	15.2	1.8	-1.9	11.1	0.8	11.7	4.1
12	철강제품	28.2	1.3	12.4	-2.1	15.8	24.7	3.0	8.3	10.5	0.7	2.5	14.3
13	고무 및 그 제품	3.7	7.7	11.6	-4.1	-7.9	3.1	0.4	3.3	8.4	0.6	-13.8	-5.3
14	알루미늄 및 그 제품	9.2	-8.0	10.6	6.1	-1.4	6.9	0.8	-8.0	8.3	0.6	-5.2	-1.3
15	유리 및 유리제품	6.6	21.2	5.5	15.8	1.0	5.9	0.7	10.0	6.2	0.4	37.9	-0.3
16	화장품.에센셜	0.5	22.0	2.5	55.4	-2.0	0.5	0.1	15.9	6.2	0.4	221.2	-5.7
17	금속도구 및 제품	3.3	8.6	5.1	38.5	-1.9	2.9	0.3	7.4	4.3	0.3	-1.4	-1.5
18	인조장섬유	6.2	14.6	5.7	-8.0	0.4	4.9	0.6	-4.7	4.1	0.3	-13.6	0.8
19	염료.도료	4.1	9.9	4.8	-1.9	-0.7	3.3	0.4	-5.5	4.1	0.3	2.4	-0.8
20	원피.가죽	0.1	-26.7	5.1	0.3	-5.0	0.1	0.0	28.3	4.0	0.3	-6.8	-3.9
	소계 (수입상위 20품목)	765.1	-	1,739.5	-	-974.4	623.3	75.0	-	1,369.1	96.6	-	-745.9

* 진한 글씨 품목은 올해 대중수출 부진 품목(전체 대중수출 증가율 하회 품목)

** 품목분류 : HS2단위

** 자료 : 중국해관통계(kita.net)

1. 중국의 경기 둔화와 대응 방향

- (전망) '15년 6.9% 성장해 중국 내외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하기는 했으나 세부 지표상 경기 둔화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 필요
 - (영향) 중국 내수 부진 및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 압력 확대
 - 내수용 수입 수요 둔화/감소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 압력 및 중국 내 비즈니스 여건 악화 지속
 -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른 자원국 및 신흥국 경기 둔화 압력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압력 심화
 - ※ (증시) 1월 초 급락 장세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도 급등락 등 시장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증시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의 대중 수출 및 중국 내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글로벌 경기 불안정 및 둔화 압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
 - (대응방향)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성장 시장으로 내수 개척 및 신규 시장 수요를 겨냥한 진출 방안 마련이 중요
 - 소비재 및 내수형 중간재 시장에 주목
 - 중국의 정책성 수요 즉 경기부양형 국가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
- *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등 정책 추진에 따른 시장 기회에 주목

2. 위안화 변동과 우리의 대응 방향

- (전망) 최근과 같은 급격한 평가절하('15.8.11~14 간 4.65% 평가절하)와 같은 수준은 아니나 올해 초의 평가절하*에서 보는 것처럼 다소간의 환율 조정 가능성 상존

* '15년 12월 4일~12월 18일 1.5% 평가절하, '15년 12월 28일~16년 1월 7일 1.4% 평가절하

- (영향) 대중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음
 - 내수용 수출은 다소 불리하겠으나 가공무역 수출('14년 51.9%)은 중립적이거나 약간 유리
 - 한편 주요국간 환율 경쟁이 격화될 경우 우리의 대세계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진 않겠으나 국제경제 불안정성 확대
 -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자원국 및 신흥국의 수출 여건 악화의 영향에 따른 글로벌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음
- * 중국의 수출 확대 → 글로벌 수요 및 경기부양 효과 발생

- (대응방향) 위안화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환율 방어 강구
 - 적정 수준의 원화 환율 방어 강구
 - 환 변동 보험 강화 등 환율 불안정성에 대비
 - 환율 변동에 따른 국가 간 생산비용 변동을 감안한 공급망(supply-chain) 조정* 강구

*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생산비용 변화를 고려한 생산 및 공급망 재배치

3. 중국의 수출입 및 우리의 대중 수출입 둔화와 대응 방향

○ (전망) 중국의 수출입 둔화 지속될 가능성

- 수출 부진 요인은 글로벌 성장률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 수입 부진 요인은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경기 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내수용 수입수요 감소 등
- 다만, 수출의 질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가공무역 수출 축소 안정에 따른 중국내 부가가치(즉 중국기업의 독자적인 능력에 의한 수출)는 제고

○ (영향) 대중 수출 둔화 가능성 지속되는 가운데 무역 형태 및 업종별로 수출 여건 상이하게 전개

- 대중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수출 부진에 따른 관련 가공무역 수출 부진, 경기 둔화에 따른 대중 내수용 수출 부진, 국제 원자재(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관련 업종(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 부진 등으로 당분간 이 분야 수출의 부진 가능성 높음
- 반면,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중간재(반도체, LCD 등)의 수출은 양호하게 나타나며 현재 상황으로 보아 이 분야 수출 전망 양호

○ (대응 방향) 투 트랙 강화 및 신규 및 정책 수요 맞춤 전략 강구

- 가공무역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및 밸류체인(공급망) 조정
-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제고를 위한 한중 FTA 활용 강화, 전자상거래 활용 확대
- 중국의 신규 및 정책수요 시장* 수출 확대

*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신형도시화’ 관련 시장 등

4.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현재 추세로 보아 중국의 수출입 둔화는 물론 우리의 대중국 수출입의 둔화와 구조 변화는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추세적 둔화속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가공단계별 구조 변화의 방향은 반제품 및 자본재 중심구조에서 부품·부분품 및 소비재 중심구조로의 변화임
 - 한중 무역에서 국제분업(밸류체인)과 최종 소비재가 더욱 중요해 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제품 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제고와 유통망 구축이 중요해 질 것임
- 업종별 변화의 방향은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비중 감소와 전기 전자 및 각종 소비재의 비중 확대임
 - 한중 무역에서 20%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대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한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중요
 - 전기전자 및 소비재 비중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기술개발은 물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통망 강화와 연관 분야 개발*이 중요
- * 전자상거래, ICT 기반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등
- 가공무역은 앞으로도 한중간 수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감안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
 - 가공무역 방식을 다양화 하는 동시에 다국 간 가공무역으로 확대 하고, 한국-중국-제3국(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가공생산(밸류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한중 FTA는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우리의 대중 진출 경쟁국 이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의 기회이므로 다양한 활용전략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

<첨부1> 13차 5개년 계획(2016~20) 주요 내용

□ (주요 특징) 13.5 계획 건의의 특징은 중고속 성장, 혁신(創新) 경제, 중층적 지역특화, 능동적 개방, 동반(共享) 성장 등 5가지

- (성장률) 12.5 계획 기간('11~15년)의 '안정적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하향 조정
- (성장동력) 기존의 '과학기술 진전과 혁신'을 '혁신형 경제'로 통합, 강화
- (국토개발) 권역별 특화 발전, 도농 연계, 국내 지역과 변경 연계를 통합해 도농·국내외 연계를 권역별로 특화한 '중층적 지역특화'발전전략을 제시
- (능동적·포용적 대외개방) 고수준의 국내-해외 연계형 개방 경제 통해 내수-외수(外需) 협조(協調), 수출입 균형, 해외진출-외자도입 병진, 지역적·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및 네트워크 확대
- (동반(共享) 성장) 공평한 소득 및 기회 분배로 발전의 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성 제고

<13·5 계획 주요 내용>

분야	이슈		주요 정책
기본 방향	기본방향		혁신(創新), 협조(協調), 녹색, 개방, 동반(共享)
	거시 정책	성장률 산업고도화	- 중고속 성장, '10~'20년 GDP 및 1인당소득 2배 성장 - 산업수준 제고, 소비기반 성장, 도시화 진전
	경제 개혁	정부기능 조정 국유기업 개혁	- 기능 전환, 권한 조정, 효율 제고, 거시조절기능 강화 - 국유자산관리 개선
5개 정책 분야	혁신 (創新) 경제	발전동력 육성 발전공간 창출 혁신거점 육성 신성장산업육성	- 혁신형 창업·대중창업·대중혁신 통한 신수요-공급원 발굴 - 권역별 중심지 육성, “인터넷+” 추진 - 과학기술 프로젝트·실험실 추진 - “중국제조 2025” 추진
	균형 성장	지역 간 균형 도농 간 협조	- 지역 간 협조 강화 : 요소의 이동, 지역별 기능 조정 등 - 도농 간 협조, 도농 일체화 추진
	생태 발전	생태 보호 에너지 절감	-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 자원 이용 추진
	대외 경제	무역 개방 투자 개방 해외진출·협력 FTA	- 개방 통한 발전, 외자투자 법제화·국제화·원활화, 설립전 내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서비스개방 - ‘일대일로’ 통한 국제협력, 개방과 국내 지역특화 발전 연계 -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및 공공재 공급 확대, FTA 확대
	동반(共享) 경제	동반성장 지속성장	- 공공서비스 공급, 빈곤구제, 소득격차 감소, - 교육 제고, 취업·창업 지원, 사회보장 확대, 위생, 인구(2자녀 정책)

자료 : 중국공산당 13.5계획 건의(2015.10.30)

<첨부2> 중앙경제공작회의('15.12.18~21)에 나타난 2016년 경제정책

- (기본방향) 온건한 경기부양, 구조개혁(공급측 개혁)
- (주요 정책) 5개 분야별 정책
 - 온건한(穩) 거시정책 : 구조개혁을 위한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운영
 - 강력한(准) 산업정책 : 확정된 구조개혁의 분명한 추진
 - * 농업현대화, 제조 강국 건설, 서비스업 발전, 기초인프라 네트워크 수준 제고 등
 - 활력 있는(活) 미시정책 : 시장 환경 개선, 기업 활력 및 소비자 잠재력 촉발
 - 실질적(實) 개혁정책 : 개혁 조치의 실질적 추진
 - 최저수준 보장하는(托底) 사회정책 : 주민의 최저 생계 보장
- (개혁 조치) 5대 임무
 - 과잉생산 해소
 - 기업 비용절감 : 제도적 교역비용 절감, 정부기능 전환, 중개서비스 규범화, 조세·사회보험 부담 경감, 금융·요소비용 절감
 - 부동산 재고 해소 : 호적개혁으로 도시화율 제고, 주택제도 개혁, 농민공 도시민화
 - 유효공급 확대 : 빈민구제 강화, 기업 기술개조 및 투자 능력 제고, 창업 확대, 인프라 확대 등
 - 금융리스크 예방 및 해소

자료 : 중앙경제공작회의(2015년 12월 21일)

<첨부3> 2016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전망

- 대중수출 결정요인 검토 시 2016년 수출은 비관적이나 일부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 2015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질 전망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
 - * 대중수출 결정요인 : ▶중국의 수출, ▶중국의 내수, ▶현지 공급 및 조달 동향, ▶기타 (원자재가격, 환율, 통상, 밸류체인 변화 등)
 - 상기 4개 요인 검토 결과 2015년에 비해 일부 요인 호전으로 전체 대중국 수출은 2015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

<2015년과 2016년 대중국 수출 요인별 평가>

	2015년 평가	2016년 전망
중국의 수출	매우 부정적 - 1~11월 2.8% 감소	부정적
중국의 내수	다소 부정적 - 성장률 6.9% 예상	중립 - 서비스업 성장, 일부 경기부양
현지 조달 및 밸류체인 변화	매우 부정적 - 현지조달 확대 - 밸류체인 동남아 이전	매우 부정적 - 현지조달 지속 확대 - 밸류체인 재편 지속
기타 (국제원자재 가격, 환율, 통상 등)	매우 부정적 - 유가 급락 - 위안화 평가절하	부정적(일부 호전) - 저유가 지속 - 위안화 일부 평가절하 - 한중 FTA 발효(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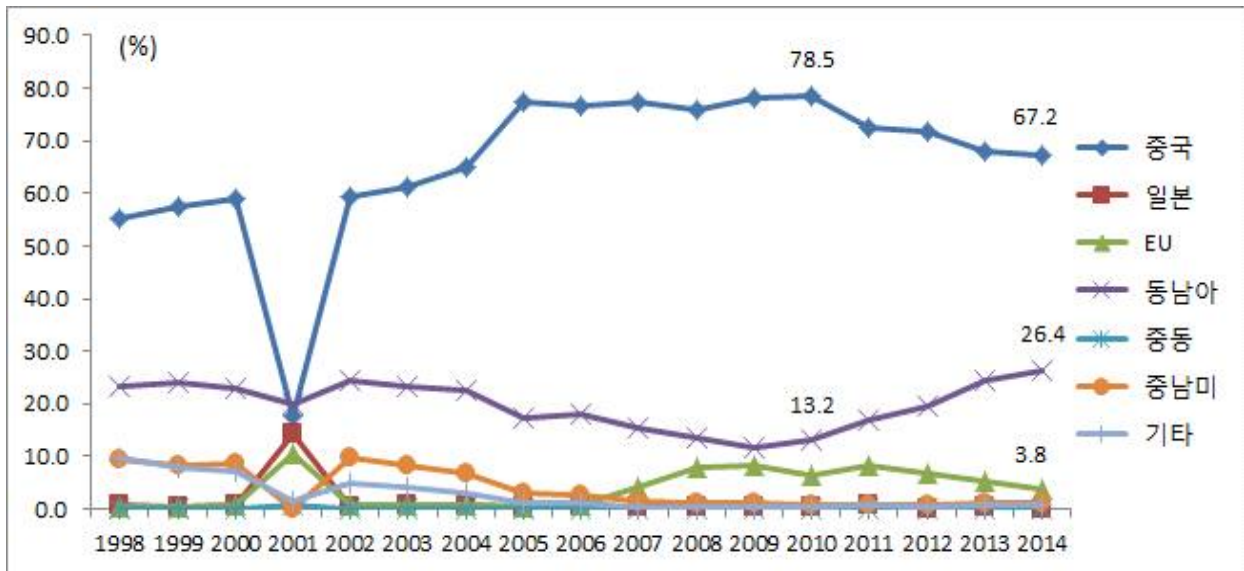


- **(중국의 수출)** 한국의 대중수출과 깊이 연동되어 있는 중국의 수출은 EU 및 신흥국(자원국 포함) 경기 부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약화) 등으로 인해 부진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내수)** 중국의 경기 둔화로 중국 내수용 수출 역시 부진할 가능성이 큼
 - * 중국정부는 13.5계획기간(2016~2020년) 목표 성장률을 6.5% 전후로 제시
 - 다만 최근 수년간 나타난 중국의 소비재 수입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중국 내 현지공급 및 조달)** 2016년 시작되는 13.5계획에서도 중국 내 개발 및 제품경쟁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의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이어 10대 신 성장 산업 육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중국 내 조달 확대에 따른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 여건은 낙관적이지 않음
 - 다만, 과거와 달리 산업육성 과정에서 보호주의적 성격이 약화되고, 정보화 등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수요 가능성도 커 일부 수입수요 확대 가능성 기대
- **(기타 요인)** 불리한 요인과 기대 요인이 병존하는 가운데 대체로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국제유가)** 셰일가스 개발, 글로벌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수요 둔화 등으로 저유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는 대중국 수출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우리의 대중국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
 - **(환율)** 2015년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에 따라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은 평가절하 추세를 보이겠으나 변동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위안화 환율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 전기전자, 섬유 의류, 신발 등 주요 글로벌 밸류체인형(국제분업형) 업종의 중국내 생산이 베트남 등 여타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글로벌 밸류체인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련 업종의 대중수출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
 - **(통상환경)** 반면 한중 FTA로 인한 중국의 수입관세 철폐/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는 대중국 수출을 촉진할 전망

<참고> 한국의 가공무역, 중국에서 동남아로 다변화

- 우리나라의 가공무역(가공무역 지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2010년 78.5%에 달하기도 했으나 최근 수년간 감소세 지속
 - * 가공무역에서 중국의 비중 : ('10년) 78.5% → ('14년) 67.2%
- 반면 가공무역에서 동남아의 비중은 같은 기간 13.2%p 급증
 - * ('10년) 13.2% → ('14년) 26.4%

<한국의 가공무역에서 주요 지역/국가의 비중>



* 그래프 상의 수치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가공무역 지출(가공서비스 지급)에서 각 국가 및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킴

* 자료 : 한국은행



작성자

◆ 중국사업단 정환우 박사



KOCHI 16-001

중국 시장 및 한중 교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 행 인 | 김재홍
편 집 인 | 윤원석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6926-98-7(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중국 시장 및 한중 교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